

‘농지은행’ 예산 1조 8천억원...청년농 집중 육성

농어촌공사, 전년 대비 3459억원·23.6% 증액...역대 최대 편성 농지 2500ha 매입 청년농 지원·은퇴농에 직불금 지급 등 개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민석)가 역대 최대인 1조 8095억원을 투입해 청년농 육성과 농업구조 개선에 나선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0일 농지은행사업 예산을 전년(1조4635억원)보다 23.6%(3459억원) 증액된 역대 최대인 1조809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농업 환경 변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지은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청년농 등 농업 새내기에게 안정적으로 농지를 지원하고, 고령농에게는 생활 안정 기반을 조성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목표로 한다. 우선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중점 사업은 은퇴농 등의 우량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이다. 올해 대비 40%(3050억원) 증가한 1조700억원을 편성했다. 농지 2500ha

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지는 의무적으로 비외 타작물을 재배토록 해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영 규모를 확대하려는 청년농을 지원하는 농지매매와 장기임대차 지원 면적을 1630ha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1236억원을 편성했다. 농지매매사업의 청년농 지원 면적은 180ha로 늘어나고, 지원 단가도 m²당 2만6700만원으로 인상에 청년농 부담을 줄인다. 장기임대차는 지원 면적을 1250ha로 늘리고 농지 이양 은퇴직불과 연계한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매매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한 은퇴농에게는 직불금도 지원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예산 126억원을 신규 편성해

65세 이상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면 매월 ha당 5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장기임대차 사업과 연계해 매월 직불금과 농지연금을 수령하면서 농지 임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직불금은 매월 ha당 40만원을 수령하고, 농지연금은 5% 우대 지급한다. 직불금과 연금 수령 기간이 종료되면 공사가 농지를 매입,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농을 위한 맞춤 사업도 확대한다. 초기 자본이 부족해 농지매입이 힘든 청년농에게는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장기 임대한다. 농지 대금을 모두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한 171억원을 편성하고,

지원 면적도 40ha로 확대한다. 스마트팜 영농을 원하는 청년농을 위해 농업스마트업단지(54억원~300억원)와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45억원~60억원) 조성 예산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농지은행은 농가의 경영·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2337억원), 농지연금(2423억원)과 과수농가의 경영규모화(270억원)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청년농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며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해 남은 국회 예산심사와 2024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7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총화상'을 수상한 임곡농협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광주 임곡농협, 농협 최고의 영예 '총화상' 수상

사회공헌·업무추진 등 최우수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지난 7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임곡농협이 '총화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총화상은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협 사무소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업무추진 능력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최우수 사무소에 수여하는 가장 권위있

는 상이다. 임곡농협은 2022년 상반기와 9월 종합업적 1위 달성, 상호금융예수금 1000억 달성, 상호금융대출금 700억 달성, 산단행복지점 개설, 주유소 이전 신축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 특히 지역민과 소통을 통해 소외계층과 고령조합원 나눔활동,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법세 종자 무상 소독,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꾸준한 기여를 해왔다. 기재만 임곡농협 조합장은 “총화상 수상은 조합원, 고객 분들의 성원과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일직일 덕분이다”며 “앞으로 더 행복한 농업·농촌을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임곡농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진청, 콩 재배·병해충 관리법 소개

농진청(청장 김기현)은 10일 콩이 여우는 시기를 맞아 콩 재배 요령과 병해충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소개했다. 콩은 고추리가 커지는 시기 과잉 수분으로 인한 습해가 발생하면 고사율이 높아져 수확량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9월에는 태풍이나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수로를 정비하고 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재배지 가장자리의 흙을 걷어내는 등 침

수에 대비해야 한다. 반대로 가뭄이 심할 때는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나 분수관으로 밭에 물을 대주고, 논에서는 고랑의 4분의 3 높이만큼 물대기를 해 수분을 보충해줘야 한다. 무더운 날씨에 대기 습도까지 높아지면 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탄저병, 미라병, 자주무늬병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콩알이 여물 때 노린재류 해충 피해를 보면 고추리가 비거나 콩알 색이 변해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생육 후기에는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가 가장 큰 피해를 주므로, 개화기 이후부터 수시로 점검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초기에 등록된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약제는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며, 관련 병해충 약제 정보는 농진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h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올 추석 인기 선물 '소고기'

전체 21.4%...건강식품 뒤이어 선물 구매 예산은 평균 36만원

구매 의사가 가장 많은 추석 선물세트는 '소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달 1~10일 만 19세 이상 국내 소비자 302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1.4%는 추석 선물로 소고기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6.8%는 건강기능식품을, 12.2%는 사과·배 혼합세트를 선물하겠다고 답변했다. 선물 구매처로는 대형마트(41.2%)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온라인·모바일(17.2%), 중소형 슈퍼마켓(10.3%) 등이었다. 선물 구매 예정 시기는 추석 1주 전(45.3%), 추석 2주 전(24.4%), 연휴 시작 즈음(23.4%) 등의

순이었다. 추석 선물을 사겠다는 2194명의 구매 예산은 평균 36만995원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27.5%는 구매 예산으로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고, 50만원 이상이 17.8%,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은 17.3%로 조사됐다. 성수품 중에서도 구매 의향이 가장 높은 품목은 소고기(21.7%)였고, 사과(15.0%), 배(12.0%), 돼지고기(11.1%)가 뒤를 이었다. 성수품 구매 시 고려 사항은 가격(38.4%), 맛(21.9%), 신선도(21.5%) 순이었다. 성수품 구매처는 대형마트(30.6%), 전통시장(20.1%), 중소형 슈퍼마켓(11.4%) 등의 순이었다. 올해 추석 귀성 의향이 있다는 사람은 31.6%로, 올해 설과 비교해 12.1%포인트 하락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산물 유통의 미래와 과제' 심포지엄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13일 현장전문가 토론회·주제발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오는 12일과 13일 '농산물 유통의 미래와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우리 농산물 유통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산지와 도매시장, 소매시장 등 농산물유통 시장 전반에 걸친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심포지엄은 김동규 안양대 교수('농산물 소매유통의 전망과 구매전략 변화'), 이천일 농협경제지

주 경제기획본부장('농산물유통구조 변화와 농업의 대응'), 김성우 KREI 박사('농산물유통의 미래트렌드, 유통프리미엄 경로 간 경쟁') 순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병률 KREI 박사가 좌장을 맡아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다. 또 13일 오후부터 현장전문가 토론회와 다양한 주제발표가 열릴 예정이다. 한두봉 KREI 원장은 “농산물유통이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일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전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